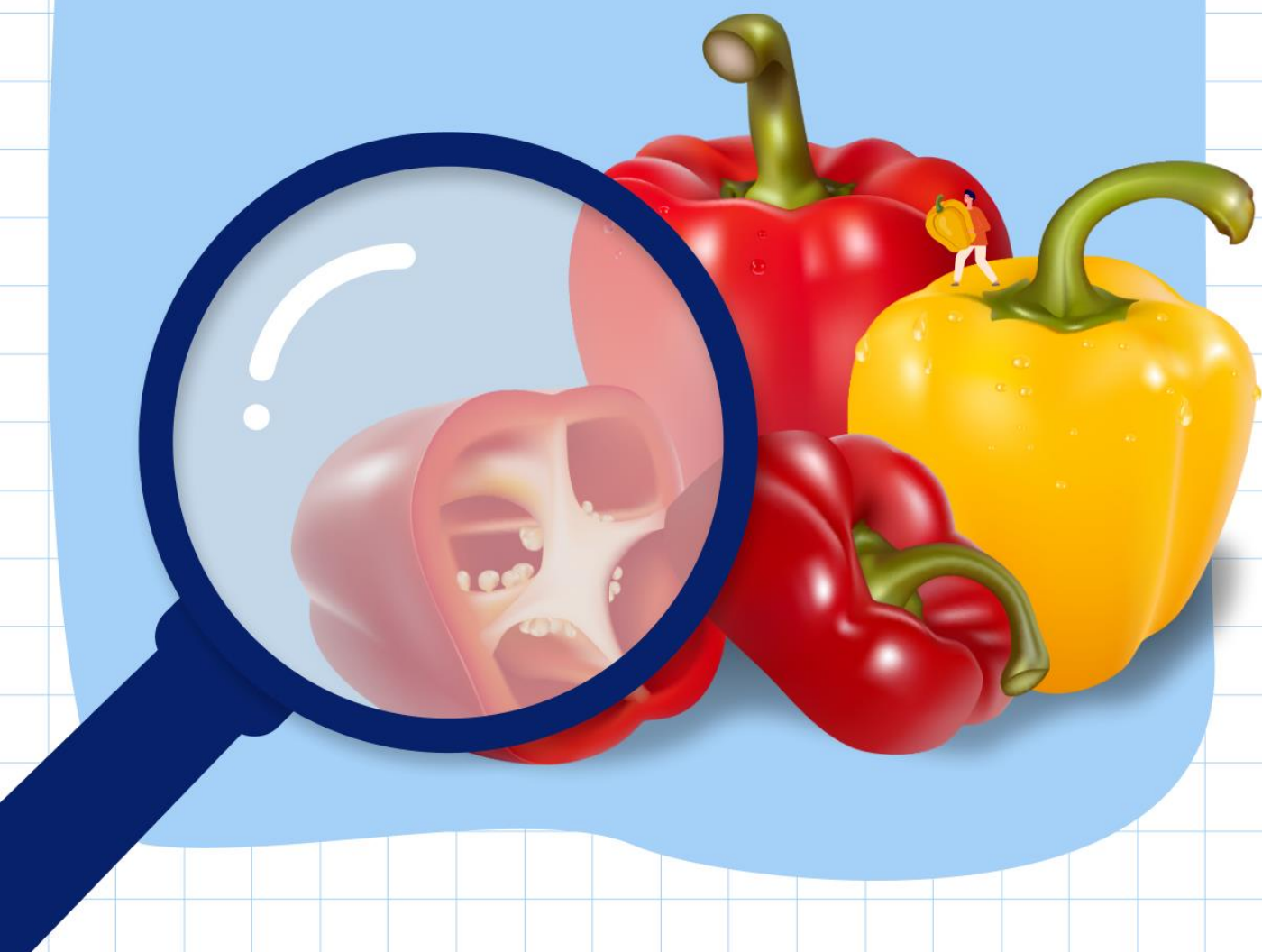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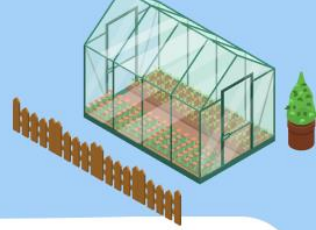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파프리카정식준비 가이드

11월 파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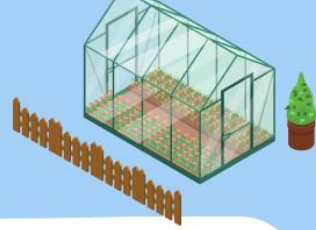


1.해충 방제

→ 물리적으로 가해하는 해충과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는 매개충의 방제.

바이러스 병은 매개충의 밀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생 위험이 높음

- 1) 엽면 살포 방제 : 엽면 살포용 방제약은 성충이나 알, 유충이 직접 접촉을 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약제 살포는 해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맑은 날, 오전 일출 후 ~ 10시 이전에 실시하고, 살포 30분 ~ 1시간 후에 환기시켜 작물을 건조하게 해야 한다.
- 2) 관주 방제 : 작은 뿌리파리 유충, 선충 등 배지(근권)에 있으면서 뿌리를 가해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급액관을 통해 약제를 투입(관주) 하여 배지에 약제살포를 한다. 이 때, 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제가 배지(근권)에 오래 남아있어야 하므로 하루 중 마지막 급액시 관주한다.
 - 2-1) 관주 방제 : 약제를 관주 하여 식물이 흡수한 후에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식물이 약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관주 전날, 급액을 일찍 종료하고, 다음 날(맑은 날)에 첫 급액시 관주한다.
- 3) 물리적 방제 : 트랩을 사용하여 물리적 방제를 실시한다. 황색 트랩은 나방류나 가루 이류, 파리류에 효과적이며, 청색 트랩은 진딧물에 효과적이다. 가루이 방제를 위해 트랩을 설치할 경우, 키가 큰 작물(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의 경우에 2열(상부-생장점 위, 하부-지재부)로 설치하면 성충 방제와 번식 억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4) 친환경적 방제 : 친환경적 방제는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나 친환경제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친환경적 방제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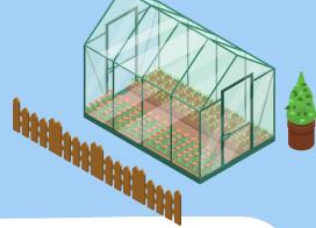


2. 곰팡이병 방제

→ 적당한 습도만 있으면 발병하는 곰팡이 병은 활물기생, 사물기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온도와 무관하게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일으킴. 곰팡이는 포자 상태로 계속 온실 내부에 존재할 수 있어서 빠른 방제효과를 얻기 힘들며, 환경 관리와 예방이 매우 중요함. 곰팡이는 습도만 충족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계절 모두 발생 위험이 높음

- 1) 활물기생 : 활물기생이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 을 말하며, 대표적인 활물기생 곰팡이 병에는 흰 가루병과 잎곰팡이가 있다. 흰가루 병이나 잎곰팡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징이 확인되는 잎은 가능한 제거하여 온실 밖으로 배출한 후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물기생 곰팡이에 비해 활물기생 곰팡이병은 방제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 2) 사물기생 : 사물기생이란 죽은 조직에 붙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으로 대표적인 사물기생 곰팡이는 잿빛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다. 사물기생 곰팡이는 병징이 확인되는 부위는 모두 제거하여 온실 밖으로 배출하고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물기생 곰팡이 병징이 나타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므로 제거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다. 파프리카 정식준비



3. 세균병 방제

→ 온도와 습도가 적당할 때 발생 빈도가 높아지므로, 주로 봄, 여름, 가을철에 작물에 문제를 발생시킴

- 1) 과산화수소수 엽면살포 : 과산화수소수는 빠른 효과와 잔류 물질이 없어 작물 재배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이다. 병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예방으로도 사용하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강화되어 병 침투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 2) 소독약 살포 : 잔류성이 있는 소독약은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이신 계통의 약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량을 정확한 기간과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 3) 배지 소독 : 유기물 배지(코이어 등)는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무기물 배지(암면 등)에는 염소계 소독약을 사용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